

기사 인쇄하기 :: 애틀랜타 조선일보 http://www.atlantachosun.com

[ 플레즌힐로드 교각공사 내년 착공 ]

귀넷플레이스CID '다이아몬드형 교차로' 추진

플레즌힐로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I-85 교차로 다이아몬드형 인터체인지(Diverging-Diamond Interchange, 이하 DD) 공사가 2012년 착공될 전망이다.

그 동안 DD 도입을 추진해온 귀넷플레이스 CID(Community Improvement District)에 따르면, DD 프로젝트는 올 여름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예상 비용은 약 300만달러 수준이다.

플레즌힐로드의 DD 프로젝트는 조지아 교통부(DOT)와 지역 특별판매세(SPLOST) 등으로부터 펀드를 받아 이뤄지는 것으로 올 여름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. 귀넷플레이스 CID는 DD가 완공되면, 평소 정체가 심한 플레즌힐로드의 교통 소통이 현재보다 최소 25% 이상 좋아지고 교통사고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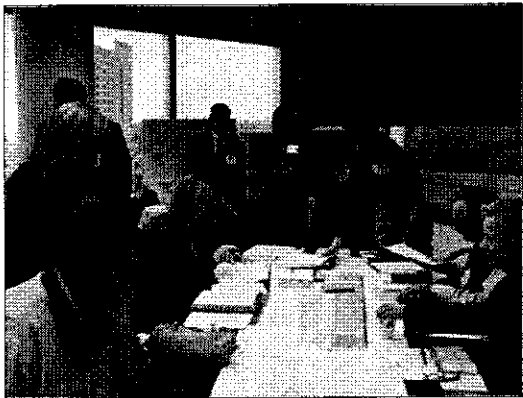
최근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도로 개선 프로젝트로 조명 받고 있는 DD는 교차로에 좌회전이 없이 직진 신호로만 차량이 소통돼 보다 안전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플랜으로 알려져 있다.

현재 귀넷플레이스 CID에는 제임스 송, 팀 허 등 2명의 한인 이사가 활동 중이다. CID는 매월 이사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귀넷카운티, 각 시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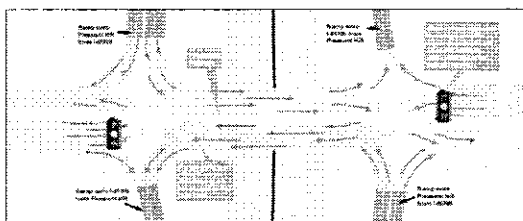
지난 3일 팀 허 이사는 “조지아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플레즌힐로드의 DD가 완공되면 플레즌힐로드를 포함한 귀넷 교통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”며 “CID는 플레즌힐로드 인근 비즈니스 업주들의 모임으로 프로젝트 기획 및 펀딩을 통해 교통망 확충, 신호체계 개선 등의 지역개발에 힘쓰고 있다”고 말했다.

귀넷카운티 비즈니스맨들의 모임인 귀넷플레이스 CID와 귀넷빌리지 CID는 2008-2009년 조사를 거쳐 각각 플레즌힐로드와 지미카터 블러바드의 I-85교차로에 DD 도입을 추진해왔다.

조속회기자 cho@atlantachosun.com



▲귀넷플레이스 CID가 회의를 하고 있다.



▲DDI 모형도.

URL : [http://www.atlantachosun.com/data/read.php?id=news\\_online&no=17058](http://www.atlantachosun.com/data/read.php?id=news_online&no=17058)

인쇄하기

닫기